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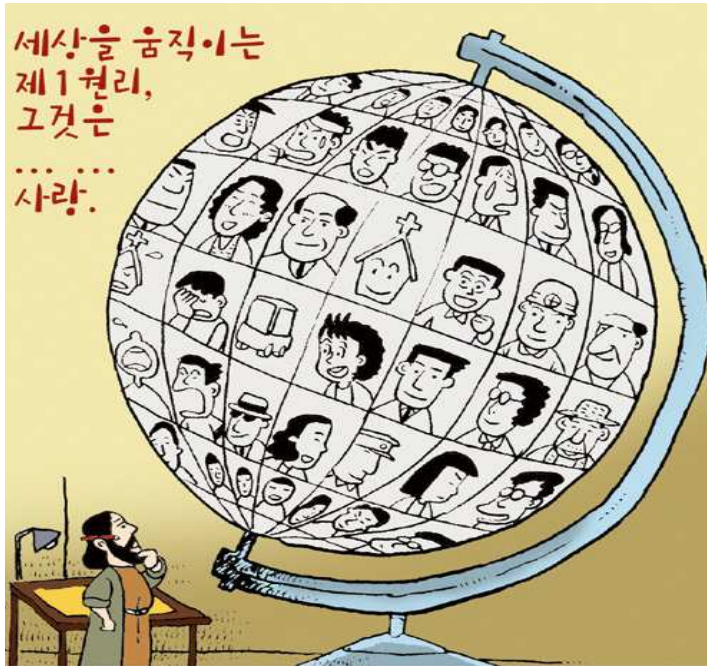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 성체조배 | 병자 성사 봉 성체 | 2주일 전 신청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 | 혼배 성사 | 3개월 전 신청 | | |
| | 향심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 하느님의 뜻영성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 | | | | |
| 주일 학교 | | 매주일 오전 11:00-12:15 | 한국학교 | 토요일 오전 9:40-12:40 | | | |



[제 1독서] 즈카 12,10-11; 13,1

[화답송] 시편 63(62), 2ㄱ-ㄴ, 2ㄹ과 3-4.5-6.8-9(◎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 2독서] 갈라 3,26-2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 9,18-24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68 | 봉헌 - | 성체 498 | 파견 44 |
| | 11시 미사 | 입당 39 | 봉헌 주님 믿나이다 | 성체 44 178 | 파견 200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연중 제12주일(6월 23일) | | 연중 제13주일(6월 30일) | | 연중 제 14주일(7월 7일) | |
|--------|------------------|----------|------------------|-----------|------------------|-----------|
|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김글라라(순희) | 권미카엘(창모) | 김안토니오(휘) | 전베로니카(진영) | 정스텔라(애리) | 이엘리사벳(자영) |
| 제 1 독서 | 강요한(신호) | 심미카엘(태규) | 이바로로(명국) | 이베드로(기만) | 김안드레아(찬곤) | 정요한(석준) |
| 제 2 독서 | 정스텔라(애리) | 심헬레나(승화) | 김안젤라(영선) | 이골롬바(정연) | 김글라라(순희) | 손리디아(정옥) |

오늘의 강론

베드로의 신앙고백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기에 단순한 질문이지만 다음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앞의 질문과는 다르게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앞의 질문은 군중들의 반응을 묻는 단순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의 그리스도 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루카9,20)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참으로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고백을 지키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9,23)고 당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는 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은 다 손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공연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생각마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사도는 자신의 신앙고백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제 2독서에서 바오로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3,27-28)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신자가 된 우리는 스스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 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느

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자기를 버리는 일도 쉽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고백한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세례를 받은 지 일 년 정도 지난 신자들의 피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생활 나눔 중 어느 신자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세례성사를 받고 신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없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그전보다 내 삶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의식도 못하고 지나갔던 행동들이 심한 죄책감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만큼 죄를 조심하게 되었고, 신앙의 삶이 어려워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기 결단이며, 삶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버리기도 목숨처럼 아깝지만,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기만족이나, 위선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 등은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늘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한 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침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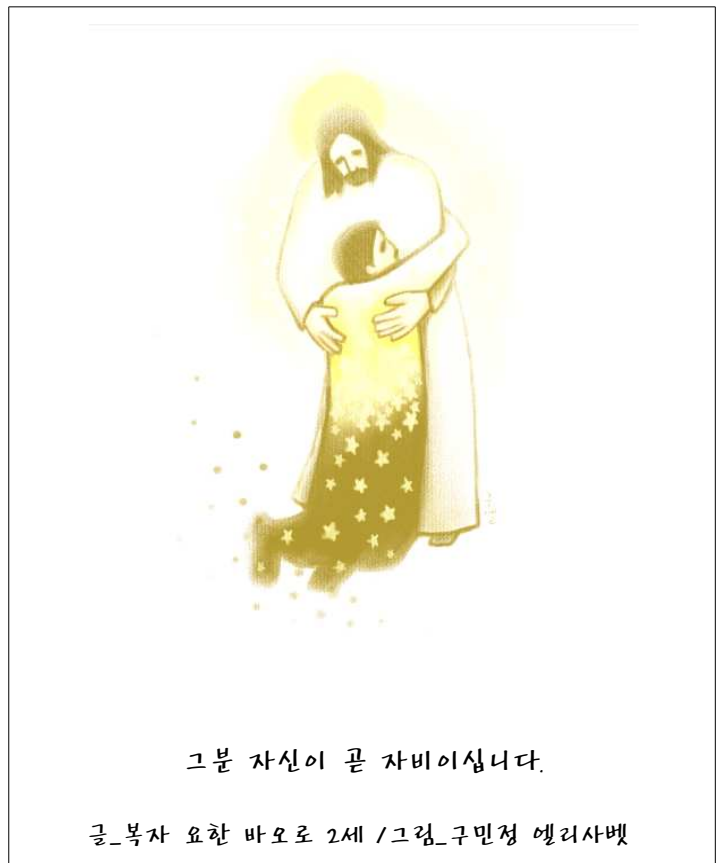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세상 속에서 고통과 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어리석은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감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라고 말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말씀의 향기

우리는 왜 손이 두 개일까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70억 명이 사는 지구를 100인의 마을로 축소해서 흥미롭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마을에는 아시아인 61명, 아프리카인 13명, 북남미인 13명, 유럽인 12명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33명은 기독교, 19명은 이슬람교, 13명은 힌두교, 6명은 불교, 5명은 천지 만물에 깃든 영혼을 믿고, 24명은 기타 종교이거나 무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인이 12억 명을 넘었다니 기독교인 중 천주교 신자는 17명인 셈이고요. 이런 식으로 식량, 에너지, 전쟁, 소득 불평등의 세계 문제를 알기 쉽게 전하는 책이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책 제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더 이상 세계를 ‘마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 집, 그것도 바로 옆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집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100일간 100만 명이 처참하게 죽거나 다치고 200만 명이 옆 나라로 피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제사회는 한참 후에야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남수단이나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수도,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유리벽 건너 옆방 사람이 배가 고파서, 혹은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게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도와야 우리 마음도 편치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도움 사람 많은데 왜 다른 나라까지 도와?”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에서는 정부나 이웃 등 우리 힘과 마음을 합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옆방’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3초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벼랑 끝에 손끝만 걸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해외에서 막대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에서도 ‘우리도 힘든데 왜 한국까지 돕느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설득하며 우리를 끝까지 도와준 덕분에 한국은

1991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신음하는 ‘옆방 사람들’, ‘벼랑 끝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보내는 건 마땅하고 옳은 일 아닐까요?

지구 집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말입니다. 저는 구호활동을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왜 손을 두개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나머지 한 손은 우리보다 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뜻이라는 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손도 아름답지만, 그들에게 지금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손을 하느님은 훨씬 예뻐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두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주신 그 손,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한비아 비아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머무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추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저는
직접적 낙태는 무교한 인간 존재를
교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언제나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2항 -

가톨릭전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난번 성경공부는 읽기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지혜서, 집회서를 재미있게 읽어보셨나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저도 지도 신부님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까?”
“네!”
“그냥 읽으면 돼”
“네?”
“그냥 읽어.”

성경 읽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성경 읽기도 마치 자기훈련과 같아서 읽고 싶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될 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동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매일 15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처럼 시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2~3시간을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은 쉬운 책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묵시록, 히브리서, 로마서 같은 경우 다른 성경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을 먼저 읽지 말라는 것은, 흥미를 잃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반복해서 읽을 때 잘 나타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경을 곁에 두고 자주 읽는 기회를 가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다면 성경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이용해 표시해 보십시오,

또한 깨끗한 노트에 그 구절들을 적어 보아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감동시키는 구절들을 정리해보면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마태오 복음을 한 번 시간이 되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 허영엽 마티아 신부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민족이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 날짜 | 지향 | 봉헌자 |
|----------|--------------|-----------|
| 6월23일 일 | 연 김중화 | 정대레사(혜경) |
| | 연 이성원 | 정대레사(혜경) |
| | 연 정벤자민(대업) | 정대레사(혜경) |
| | 연 이마르코(재상) | 가족 |
| | 연 정아네스 | 가족 |
| |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 가족 |
| | 연 윤세실리아(귀병) | 이골롬바 |
| | 연 허용중 | 가족 |
| | 연 친정부모님 | 박대레사 |
| | 연 엠베네딕토 | 엄시몬 |
| | 연 문세실리아 | 장혜임 |
| | 연 김사비나(옥순) | 향심기도회 |
| | 생 정로사(화봉) | 익명 |
| | 생 이베아따(바름) | 이야고보/카타리나 |
| 6월 25일 화 | 연 최베드로(휘종) | 가족 |
| | 연 허창원 | 가족 |
| | 연 김사비나(옥순) | 조안젤라(난순) |
| | 생 육아오스딩 | 육아가다 |
| 6월 26일 수 | 연 부모님 | 이바오로 |
| 6월 27일 목 | 생 고요한(형권) | 황안나 |
| 6월 28일 금 | 연 형제/자매 | 이바오로 |
| 6월 29일 토 | 연 이베로니카 | 자녀들 |
| | 생 이바오로 영명축일 | 영원한도움의어머니 |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92 | 233 | - | 325 |
| 헌 금 | \$581 | \$1,079 | - | \$1,660 |

< 교무금 > \$4,980

서춘애(6) 정태준(6) 염명련(5-6) 이규현(6)
 정창희(6) 임승원(5-6) 한동설(1-5) 김영길(5-6)
 한재구(4-6) 송동기(4-6) 김유한(4-6) 김정탁(4-6)
 성동화(6) 차영화(6-7) 이순열(5-6) 조정학(5-9)
 한치용(7-9) 양우선(5-6) 이윤자(5-6) 김성현(4-8)
 최명숙(6) 송인환(3-4) 이순자(5-6)

< 성소후원금 > \$60

서춘애(6) 정창희(6)

< Bishop's Appeal > \$110

서춘애(10-11) 정창희(6) 차영화(1-12)

* 양우선 세례자요한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50 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21,480

* 총 납입 \$ 8,13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육승주, 장찬호, 이인학, 김원덕, 임승원, 한재구
 이종규, 팽현팔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이창용, 변귀태, 신현규, 채성일, 조상희, 송동기
 천종욱, 지창민, 박영실, 신병석, 정경희, 송인환
 박요안나, 한서연, 김순이, 김정복, 윤장익,
 이명국, 김관숙

~~~~ 오늘 간식은 부필로메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예비자 입교식 : 오늘 교중미사 중

◆ 청장년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레지오 확장을 위해 청장년 레지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세록 제랄드 510-292-5881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사목회의 : 6월 2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하상회 : 6월 23일(오늘) 12시반 106호실
- \* ME 모임 : 6월 30(다음주) 교중미사 후 사제관 앞 회의실

◆ 연도 안내

6월 25일(화) 저녁미사 후 김명환 안드레아 형제님의 어머니 김옥순 사비나 자매님 연도가 있습니다.

◆ Sunday School Summer Camp 기금마련 점심판매

6월 30일(다음주) 친교실

◆ Sunday School Summer Camp(접수 : 친교실)

일시 : 7월 27일(토) - 29(월) 중등부  
7월 29일(월) - 8월 1일(목) 고등부  
장소 : Capital Mountain  
2150 E Weimar Xrd Weimar, CA 95736  
참가비 : Early Registration (7/7 까지)  
- 중등부 \$135 고등부 \$175  
Late Registration - 중등부 \$155 고등부 \$195  
Sibling Discount : \$20/person

◆ 빈첸시오 127차 홀리스 저녁봉사

일시 : 매주 넷째주 목요일(6월 27일) 오후 4시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디지털 카메라 장비구입 요령 강의

일시 : 6월 30일(다음 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강사 : 조덕행 에드몬드  
대상 :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향심기도 피정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6시 - 7월 28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rlingame 에 있는 Mercy Center  
참가비 : \$260(독방)  
지도 : 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이승구 신부님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6월 구역모임

|       |             |                             |
|-------|-------------|-----------------------------|
| 8-2구역 | 6월29일(토) 6시 | UC Village Four Corners     |
| 10 구역 | 6월29일(토)5시반 | Rossmoor Hillside Clubhouse |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e-mail : schun3@netzero.com

\*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미사봉헌을 위한 가정봉헌 및 사업체 봉헌도 함께 접수합니다.

◆ 김치바자회를 위해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 마리아회에서 뜨개질 사랑회 회원 모집

연령 상관 없이 관심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문의 : 이해란 세실리아/김승희 데레사 510-703-7350

◆ 전교부 주관 독서클럽 회원 모집

책을 읽고 함께 감상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문의 : 김관숙 크리스티나 510-899-9795  
김승희 데레사 510-703-7350

◆ 헤어컷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50을 주일학교 캠프 기금 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 가신 분들은 반납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소식

- 영어미사 시작 : 6월 23일(오늘)
- 중고등부 여름 캠프 문의 [campdirectors@gmail.com](mailto:campdirectors@gmail.com)
- 주일학교 개강 : 9월 8일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 8/3, 8/10, 8/17 )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6월말까지 등록 \$285(등록비 내는 날 기준)  
그 이후 등록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